

뉴욕에 “法音 메아리”

라디오 KOREA, ‘맑고 향기’... 1시간 방송 뉴욕 불교방송추진위 후원으로 시작

미국 뉴욕에서는 처음으로 부처님 가리침을 라디오전파를 통해 전하는 불교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지난 3월 27일부터 뉴욕 930 AM Korea 라디오방송을 통해 현지시간 오후 9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되는 ‘맑고 향기롭게’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불교신원 연극사 상운사 조계사 백담사 도선사 원각사로 구성된 ‘뉴욕 불교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휘광)’의 후원으로 시작됐다.

뉴욕에서 첫 방송되는 불교프로그램방송이라 교포불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는 휘광(뉴욕 불교사 주지)스님과 현지 유학중인 일진(뉴저지 몬트클레어 주립대학 재학) 일아(저지티 주립대학원 재학)스님들이 진행을 맡았다.

휘광스님은 “가독교인이 90% 이상인 교민사회에서 부처님 법음을 교포불자들에게 널리 전하고자 방송불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충실한 방송을 통해 한국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운영을 위한 기초자료인 불교 음악CD, 불교관련자료들이 부족하다는 뉴욕불교방송추진위원회는 조계종 포교원(02-720-7060)을 연락창구로 개설, 한국불교포교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김지연 기자

불교방송 공금회령 및 유용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불교방송 공금회령 및 유용회령으로 검찰에 구속중인 김현안씨(前 경리직원은)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부지법 첫 공판에서 “모든 것이 결재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출됐다. 나는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 실

불교방송 공금회령 의혹증폭 구속 김현안씨 “결재받고 정상지출” 주장

시원 4차례 조사결과도 공금회령액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 의혹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불교방송이 지난 1월 20일 작성된 삼일회계법인인 최초감사보고서가 최근 나온 최종감사보고서와 비교한 결과 일부 변조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의 축소소도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또 불교부산방송 개국성금과 관련 노조의 ‘부산방송 실사보고서’에는 24억원이 모였다고 발표했으나 불교부산방송과 당시

에서 불교방송조사특위를 구성한 데 있어 불교방송 사건과 직간접 개입의혹이 있는 종회의원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불교방송사건이 종회차원의 대응에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불교방송노조는 경영진 퇴진운동 전개를 위한 노조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상진)’를 지난 3월 30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착수했다.



▷태고종은 춘천 의원호에서 수륙영산대법회를 개최했다.

평화통일 기원 수륙영산법회

태고종 의암호서... 불자 1만여명 참석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지난 3월 25, 26일 춘천 의원호 중도광장에서 ‘남북통일 국운융합기원 수륙영산 대법회’를 개최했다.

부처님 자비사상의 실천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이번 수륙영산 대법회는 괄목할만한, 중사이운, 수륙영산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어에서 운제스님(태고종 승정)은 “미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불법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생명존중의 실천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 3부에서는 무형문화재인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이 영산재를 봉행했으며 명수스님(봉원사)의 회상곡으로 방생법회를 마무리했다.

(춘천=김주일 기자)

‘자비의 천수천안’ 100회 특집

감동사연 취재기·제작과정·방송 후일담 공개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지난 3년동안 이웃의 어려움과 불행에 함께 해온 불교TV의 ‘자비의 천수천안’(PD 김요중)이 지난 1일 1백회를 맞았다. ‘자비의 천수천안’은 매회 한사람씩 총 99명의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1백회 특집에서는 18회 출연자인 김성중씨와 85회 출연자인 이재경사 묘희스님 등을 만나 방송이후 후일담을 듣고, 장애인 입에도 굴하지 않고 불

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명희씨도 초대됐다. 또 제작과정의 눈물 어린 사연을 담은 취재기도 공개됐다. 한편 원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계진씨(전MC) 손동태씨(기독교TV ‘예수사랑 여가’ MC) 세실리아수녀 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등불같은 ‘자비의 천수천안’이 1백회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더욱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란다”는 특집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백상예술대상 불자연예인 다수 영예



◇김영애 ◇유동근 ◇배용준 ◇박신양

지난 3월 24일 열린 제33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임권택 감독이 유동근씨를 불자연예인 겸이 대거 수상의 영광을 안아 눈길을 끌었다. 임권택감독은 영화 ‘죽제’로 감동상을 수상했고, 박신양 이은정씨는 영화 ‘유리’로 남산인연기자상을, 김영애씨는 KBS드라마 ‘형제의 강’, 유동근씨는 MBC드라마 ‘애인’으로 남연기자상을, 배용준씨는 KBS드라마 ‘첫사랑’으로 남자연기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방영된 KBS 특별기획 ‘10대문화유산 시리즈’ 중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특수영상효과가 돋보였던 ‘왕룡사’(PD 황용호)가 기술상을 받았다.

전통 황토 쑥좌욕기

황토와 약초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방파와 황토좌대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과피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전통 황토 쑥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2) 미용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질환 및 변비, 치질 배근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강화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H) 2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오

●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가 보양제 된 피부노화방지 화장, 재생
● 피부탄력유지 윤택유아닌 피부 미치기 효과
● 기미, 여드름, 건반성들의 예방 및 제거
●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재발한 후두염등
(1H) 10분~15분 얼굴피부질환을 하십시오

● 규격: 높이 27cm x 직경 33cm
●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지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 강화약속 100일분 + 황토가루 100일분 포함
●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침대를 이용하여 시면 대면이 편리합니다

※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대 (별도선택사항) : ₩ 90,000

해외불교

미불교협 국제학술 세미나 서래사서 10개국 50명 토론

미국불교협회(회장 에드워드 루지카)는 지난 3월 15일 LA교구 서래사에서 ‘다양한 문화속의 불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방불교, 대승불교, 밀교의 이론과 수행에 대해 스리랑카 및 중국, 티베트스님의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이어 중국, 일본, 버마, 태국 등 10개국 스님과 대중 50여명이 ‘불교의 근본사상과 다양한 문화속에서의 불교의 조화’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가 특별초청연사로 초빙된 법륜스님(JTS·세계기아 질병 문맹퇴치 민간기구 대표)은 ‘불교의 깨달음’이란 주제로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달라이 라마 대만 방문

중 심기불편 남동부 해안군사 훈련시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계속적인 한의외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만을 방문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6일간 대만에 체류하면서 이 동위원들을 비롯해 대만불교협회의 종교인사를 만나고 불교 집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 달라이 라마는 이번 방문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대만의 불교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고 문화교류와 포교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 허용은 국민당 분리주의자와 티베트 독립운동 세력간의 연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항의한 바 있는 중국은 최근 남동부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달라이 라마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인 민중에게 반응한대는 지난 2월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중심도시인 이닝(伊寧)에서 일어난 유흥폭동과 최근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발생한 버스 폭발 사고 등 최근 소수민족의 반중국 경향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종단소식

태고종
선암사 수호 결의
지암스님 주지직 대행

순천 선암사는 지난 3월 21일 40여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 삼검당에서 전산대회를 개최하고 태고총림을 수호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전산대회에서는 태고종 총무원장 2인 선암사 원로재계승 3인 종진스님 6인등 11명으로 선암사수호대책위(위원장 지암·광주 세심정사 주지)를 구성했다. 한편 수습대책위원장 지암스님은 이날안으로 열린 전산대회까지 주지직을 직무대행 한다.

청년회 활성화안 마련
포교·행동등 분과 운영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가 ‘청년회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발한 포교 및 사회사업에 전개키로 했다.

중앙청년회는 지난 3월 29일 대전 광수사에서 열린 중앙청년회 창립 26주년 기념법회에서 행정, 조직, 사업,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회 활성화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임원단합대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조직강화를 위한 자체 간담회와 토론회도 열렸다.

원용종
일공종정 추대식
창종 16돌 기념법회

대한불교 원용종은 지난 3월 27일 서울 개포호텔에서 ‘창종 16주년 및 국가의 계를 위한 기원 대법회’와 일공종정 제3대 종정추대 및 보인스님 제4대 총무원장 추대취임을 봉행했다.

보인스님은 총무원장 취임사에서 “종단발전과 총무원장 수행을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서(종단협 상임부의장) 덕암(태고종 승정) 스님을 비롯해 법흥(원효종) 홍파(관음종) 대호(대한법회종) 영명(법상종) 인왕(여래종) 지명(조동종)스님 등을 비롯 함종산(한한국당 불교신도회장)의 원 승순경씨(한국여법사회장) 등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했다.

진신사리 10과 봉안
18·19일 삼광사 대보탑 낙성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는 오는 18, 19일 이틀간 ‘호국호법 남북평화통일기원 53층불 8면 9층 대보탑 낙성 법요식’을 개최한다.

이번 법회는 18일 봉안식 및 국제 고승대덕스님 환담회, 점등 법요식에 이어 19일 낙성 법요식 및 문화예술제, 영산불공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보탑은 천태종의 8교와 신라 황룡사 9층탑 등이 호국을 다.

천태종
진신사리 10과 봉안
18·19일 삼광사 대보탑 낙성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한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마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기적때 지기능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지녔던 떼뫼해할 수 있고 여어해 지수 있다. 험악한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잘해 나가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50%는 넘지 못한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